

12월 월간보고서

방글라데시 12기 발로본두
신유식, 임병준, 송누리, 정은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Planning day	2 다하파라NFPE	3 쓰레기통청소 배드민턴대회위원회 모임 Sela: club	4 다하파라NFPE	5 Off day	6 클리닝캠페인 나눔 배드민턴포스터제작
7 배드민턴포스터부착 홍수지역재방문 현지총장님과미팅 Music club	8 다하파라NFPE 연극(콘서트)준비	9 다하파라NFPE reporting	10 시장위원회미팅 배드민턴조편성	11 배 다하파라NFPE Youth미팅홍보	12 드 Youth미팅	13 민 콘서트준비 ICS 초총보고회
14 턴 콘서트준비	15 대 다하파라NFPE 콘서트준비	16 회 콘서트준비	17 콘서트준비 YWCA pre- christmas	18 YMCA Pre-christmas 준 비	19 YMCA Pre-christmas	20 콘서트준비 Compaton pre- christmas
21 콘서트준비	22 GBC 병원 공연	23 점심 초대 인형 팔기	24 점심 초대	25 Christmas	26 점심 초대	27 점심 초대
28	29	30	31	12/23 ~ 1/3 비리시리 YMCA 휴가, 공식적인 일정 없음		

! 활동

다하파라
NFPE

과목	수업 진행 상황
영어	Class 1 — 알파벳을 가르친 후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수업 Class 2 —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맞는 단어를 가르친다. 챗트와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영어 음악	영어 애니메이션의 진행이 힘들어 음악 수업으로 진행을 바꾸었다. 간단한 영어 노래와 율동을 아이들과 함께 하였다.
수학	Class 1 — 구구단 Class 2 — 사고력 수학
체육	공으로 할 수 있는 놀이로 수업을 진행한다
예능	깃발댄스, 나무인형만들기, 크리스마스트리만들기 활동을 진행.

다하파라
NFPE



클리닝 캠페인

11월에 기획하였던 클리닝 캠페인을 조금 늦게 진행하였다.

비리시리 지역에 파견된 라온아띠가 이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YMCA Youth 멤버들과 함께 클리닝 활동을 하고, 시장에 쓰레기통 설치도 하여서 Youth들과 시장 상인들은 클리닝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 하였으나,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직 쓰레기통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았다. 그래서 우트렐 바자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통 사용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 했다. 왜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는지 뱅갈어로 판넬에 적어 게시하고, 쓰레기통을 농구 골대처럼 만들어서 쓰레기 공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오전 시간이라 유동 인구가 많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또한, 정보 판넬을 농구게임 옆에 세워두기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시간대를 조정하여 다시 한 번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이다.

클리닝
캠페인



Youth Club

중간평가를 지나면서 클럽이 단순히 Youth들과 관계형성을 하는 장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가 활동을 하는 장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클럽의 진행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매주 한 번씩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클럽 Youth 멤버들과 함께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다.

Sports club

배드민턴 대회

Selai club

인형 수익 사업

Music club

GBC hospital 크리스마스 콘서트

Sports club

배드민턴

대회

방글라데시에서는 겨울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즐긴다. Sports Club에서도 배드민턴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배드민턴을 통해서 지역 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다. Sports club Youth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운영 계획을 세웠다. 이후에 손수 포스터를 제작해 마을 곳곳에 부착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11일부터 16일까지 총 16개 팀이 참가하여 예선전, 준결승, 결승전을 치렀다. 새로운 마을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 즐길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홍보기간이 짧았던 탓에 무슬림, 힌두 주민들까지 참여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Sports club
**배드민턴
대회**



Music Club
GBC병원
크리스마스
콘서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비리시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축제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뮤직 클럽에서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12월 22일, 병원을 찾아 노래와 연극을 하면서 환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겼다.
준비과정부터 공연을 진행 하는 순간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잘 끝낼 수 있었다.

Youth 미팅

Youth들과 미팅을 통해서 노래와 연극을 결정

연극 — 방글라로 번역을 하고, 함께 소품을 만들고 연극을 준비함

노래 — 방글라 노래 3곡과 한국 노래 곡을 준비함

Music Club
GBC병원
크리스마스
콘서트



Selai Club

인형 판매

지난 9월 비리시리에는 큰 홍수가 일어났었다. 우리도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많은 Youth들도 홍수 피해 복구에 동원되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Selai Club에서 인형을 만들어 그 수익금으로 홍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바쁜 와중에도 많은 Youth 멤버들이 함께 인형을 만들어 주었고, 크리스마스 전 시장에서 인형을 판매 하여 수익금을 마련했다. 이 수익금으로 1월 첫째주에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2. 생활

Pre- christmas

비리시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온 마을이 축제를 즐긴다. 여러 NGO기관에서도 pre-christmas를 기념한다. YWCA와 compassion의 초대를 받아 방문을 하였고, YMCA에서는 Youth들과 함께 노래 연습을 하여 pre-christmas를 즐겼다.



Christmas

이 지역의 크리스마스는 독특하다. 크리스마스는 큰 날이라고 하여 '보로딘'이라고 하고, 새해 첫 날은 작은 날이라고 하여 '초토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보로딘에서 초토딘까지 연휴를 즐긴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그리고 여러 번의 결혼식을 참석하며 이곳의 문화를 많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부터 마을에서는 kiton을 진행한다. 여러 전통악기와 함께 원을 만들어 춤을 추는 의식이다. 단원들도 각 마을의 kiton에 참여하여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마스 당일이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 후, 마을을 돌면서 가로 전통 케익인 만띠를 먹는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슈보 보로딘'을 말하며 인사를 한다. 마을별로 kiton을 진행하고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는 큰 행사가 있다. 이곳 크리스마스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즐긴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hristmas



결혼식

연휴 기간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진다. 결혼식 전 날 밤새도록 culture program과 kition을 하면서 결혼식을 축하한다. 또한, 스테이지와 게이트를 비롯한 모든 준비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한다. 마을 사람 전부가 자신의 일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마을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



3. 우리들의 고민

전체 활동

우리의 전체 활동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였다. 그래서 클럽을 매개로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활동을 한 번에 진행 하려고 해서 그런지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았다. 배드민턴 대회인 경우 종교와 성별에 상관없이 다 같이 즐기는 장을 만들고 싶었으나, 홍보가 부족하였고 다른 대회와 겹치지 않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 Youth들과 모든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축제시즌이라 Youth들도 많이 바쁘고 우리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작은 부분을 많이 놓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클리닝

비리시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시장의 쓰레기를 모아서 바로 옆의 강가에 버리는데 그럼 쓰레기통의 역할은 쓰레기를 옆으로 옮기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에게 쓰레기통을 써야 한다고 캠페인을 하면서도 늘 근본적인 처리에서 막히곤 했다. 그래서 소각장을 설치 하는 게 어떨냐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소각도 대기 오염을 비롯한 여러 오염을 시키지만 언제까지 강에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지 총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시장위원회와의 미팅을 통해 소각장을 설치 할 만한 땅을 알아 보았다. 하지만, 시장 근처는 너무 유동인구가 많고 그 땅이 버스정류장 바로 옆이라 소각장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다시 우기가 시작이 되면 소각을 하지 못 할 상황에 처해 질 것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바로 소각장을 설치 하는 것 보다 우리가 했던 고민들을 Youth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 할 것 같다.

인형만들기

국내 교육 당시 진주 YMCA에서 헌 양말로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셀라이 클럽에서 Youth들과 같이 양말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는데, 홍수 지역을 돕기 위해 많은 인형이 필요했다. 하지만 새 양말을 가지고 인형을 만드니 주변에서 계속 '왜 그걸 잘라서 인형을 만들어? 그냥 양말을 팔아서 수익금을 모아.' 라는 말이 들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양말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한 활동을 통해서 수익금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형을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우리의 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뭔가 함께하는 보여지는 활동을 중요시 하다가 이들의 need를 파악하고도 우리가 외면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5. 개인 소감

신유식 (Shapon)

겨울이 되면 괜히 설레기 마련이다. 올해의 겨울은 방글라데시에서 보내고 있기에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든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휴가기간을 가지면서 6내 동네어가 생겼다. 호스트 패밀리 동생과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친척들과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 동안 몰랐던 큰 이모, 작은 이모를 만났고 조카와 사촌들을 보았다. 3개월 동안 함께 활동했던 Youth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친척들과 친구들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따뜻했던 크리스마스였다. 내가 그들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전혀 특별한 일이 되지 않을 만큼 부대끼며 살아보고 싶다.



신유식
(Shapon)

YMCA pre-Christmas 때 비리시리 YMCA Youth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들을 위해 따뜻한 옷을 전달하였다. 특히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어르신을 위해 손수 찾아가 특별히 주문한 옷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다. Youth들이 그 어르신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옷을 드린 것이었다. 국내교육 때 수업이 들었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마을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우리 앞 집의 문을 두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제 비리시리에서의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 또한 하루하루가 아깝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굳이 더 재미있고 더 친절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 마지막까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에 충실하고 싶다.

임병준
(Ananta)

한국에서 영하 18도를 찍으면서 여기의 추위는 별 불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체감온도는 여기도 영하 18도였던 것 같다.

아침부터 뽀얀 안개가 눈앞에 펼쳐졌고, 아침 이슬은 발목에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12월은 지나갔다.

사실 12월은 11월 중간평가에서 받은 평가를 만회할 기회였다.

여러가지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엄청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클리닝 캠페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만족하니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12월 보로딘(크리스마스)과 초또딘(신정)때는 초대에 초대를 받아 바빴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감사롤,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사를 건넬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임병준 (Ananta)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손잡고 춤을 추고, 같이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일 줄은 몰랐다. 몇 년간 새해는 가족들과도 보내지 못하고 혼자 보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건넨 것도 무척이나 오랜만에 겪는 경험이었다. 그 동안 사람 때문에 운 적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 달은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은 달이다.

늘 우리 팀 메이트들에게 깊은 감사лку, 그리고 못한 아들 타지에서 새해 보낸다고 미안해하는 우리 가족들, 가끔씩이나마 연락을 통해 힘주는 친구들과 총장님, 그리고 간사님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준 KB에도 감사함을 전한다.

PS. 이번 달에 우리 집 옆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 미래가 너무 걱정되어요.”라고 하자, 그분께서는 “왜 걱정하니? 걱정한다고 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머리카락 하나도 네 맘대로 바꿀 수 없는데 말이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현재에 충실하게 살도록 하렴.” 이라는 대답을 주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송누리
(Shanta)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12월, 내가 나를 드러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팀원들은
나를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나는 팀원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혼자만의 생각과
시각으로 내 자신을 벽안에 두고 있어서 팀원들에게



만폐만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끝나가는 시점에 알게되어 팀원들에게 너무
나도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더 드러내서 팀원들과도 그리고 이곳 사람들
과도 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곳에서 12월은 외로움과 동시에 새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준 달이기도 했다. 정말 많은
휴일을 받았고 그 휴일 동안 이곳에서는 축제가 있었다. 매일 와이를 가서 유스들과 팀원들
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사는 동네에 사람들과 유스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
다.

송누리
(Shanta)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새로움과 동시에 계속 함께 지냈던 유스들과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또한 나는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보낸 적이 없었다. 항상 일을 하고 있거나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냈다. 내 인생에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날을 함께 보낼 날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연말과 새해를 보낸 것에 너무 나도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보고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항상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금 이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루하루 유스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인사를 하는 것이 더 소중한고 아쉽게만 느껴진다. 몇일 전 유스들 집에 그냥 찾아갔다.

송누리 (Shanta)

그랬더니 유스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내가 왜 더 일찍 이들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항상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내가 가도 될까? 나는 언어도 되지 않아서 가서 아무말도 하지 못할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것 같다. 얼마남지 않았기에 내가 인위적으로 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유스들과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항상 느낀다. 나는 정말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말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정말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다.

정은혜
(Borsha)

하루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바빴던 달이다. 지금까지의 활동과는 달랐던 활동들. 그래서 즐거웠지만, 욕심이 과했던 것일까. 너무 많은 활동들이 겹쳐서 놓치는 부분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Youth들이 함께 채워주었다. 서로 다른 점을 맞춰가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라서 많은 것을 새로 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방글라데시에 겨울 시즌에 오게 된 것은 나에게 정말 큰 복인 것 같다. '특별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 많은 가족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Y가 아닌 마을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새해에 서로를 꼭 껴안으며 'HAPPY NEW YEAR'하며 인사를 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정은혜
(Borsha)

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 번의 결혼식을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 '마을 공동체'. 모든 마을 사람이 힘을 합쳐 음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장을 꾸미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진짜 마을은 이런 거구나' 많이 느끼게 되었다. 또, 그 속에서 나 또한 외부인이 아닌 마을의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하지만 마냥 즐거웠던 시간은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또 다시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때, 노력 하지 않는 내 모습에 많이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내가 이들의 친절함을 참 많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그 동안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헤어지고... 그게 익숙해야 했던 시간이었다. 헤어짐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서,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비리시리를 떠나게 될 시간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남은 시간은 20여일 밖에 되지 않는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진다. 활동면에서든 관계면에서든 뭔가를 더 남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는다. 굳이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대화하고 관계 맺어야겠다. 돌아가서 후회 하지 않도록.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

멋다한 사진 이야기 *

















Abar deka hobe *